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주체112(2023)년

차 례

머 리 글

정치라는 사회적기능이 생겨난 때로부터 참으로 오랜 세월이 흘렀다.

정치는 사회력사의 전 기간 사회생활에서 결정적역할을 하였으며 또하고있다.

어떤 정치가 실시되는가에 따라 나라와 민족의 운명, 매 개인의 운명이 결정된다. 진보적이고 선진적인 정치가 실시되면 나라와 민족이 흥하고 사회가 발전하며 그속에서 사람들의 삶도 빛나게 된다. 그러나 보수적이고 반동적인 정치가 실시되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도탄에 빠지고 온갖 사회악이 빚어지며 사람들에게는 불행과 고통만이 차례진다.

하기에 인류는 오랜 기간 어느 특권계급의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반인민적인 정치가 아니라 인민을 위한 참다운 정치를 바라마지 않았다.

인류사회발전의 장구한 기간 정치가 각이한 류형과 방식을 취하면서 발전하여왔지만 낡은 사회에서는 인민을 위한 정치가 실현될수 없었다.

인민을 위한 정치의 사회적조건은 인민대중이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된 사회주의사회에서 마련되게 되였다.

그러나 동유럽의 사회주의나라들에서는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된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게 인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를 하지 못하였다. 결과 쏘련을 비롯하여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의 운명에 처하게 되였다.

그 원인은 인민을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보고 인민을 위해 헌신하려는 각오와 의지를 지닌 위대한 정치지도자가 없었기때문이다.

인민을 위한 정치실현에서 기본은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지도자의 출현이다.

인민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립장을 가진 정치지도자, 인민을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품어안고 인민의 운명개척을 위하여 헌신할 각오를 지닌

정치지도자만이 인민의 본성적요구와 리익을 반영하고 그 실현을 위한 길을 밝히는 정치철학을 내놓고 구현해나가게 된다.

인민을 위한 참다운 정치는 인민대중을 제일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는 정치철학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구현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펼쳐지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계승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인류력사에 이름난 그 어느 위인도 지니지 못한 이민위천의 사상을 지니시고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정치를 처음으로 펼치신 만민의 은인, 인민의 자애로운 수령이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좌우명으로, 신조로 삼으시였던 이민위천의 사상을 그대로 자신의 좌우명으로, 신조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한 사랑과 헌신의 한평생을 수놓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지니시였던 이민위천의 사상을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으로 정식화하시고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근본핵은 인민대중에 대한 멸사복무이며 그 최고정화는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사상과 뜻을 그대로 이어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숭고한 경지를 펼치고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조선로동당은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영광찬란한 력사를 수놓아오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보고 인민대중에게 의거하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할데 대한 정치리념입니다.》

조선로동당의 정치는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을 구현한 정치이다.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는 인민대중의 존엄과 권익을 절대적으로 옹호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정치이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불러일으키는것을 당의 존망과 혁명의 성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보고 혁명과 건설의 전 기간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일관하게 해오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로 이 세상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일심단결을 이루어내고 인민이 주인된 주체의 락원을 일떠세웠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하고 집요한 반공화국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주의의 본태를 고수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로 줄달음치고있다.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가 안아오는 경이적인 현실은 오늘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커다란 경탄과 관심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도서는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보여주는 수많은 혁명일화들가운데서 그 일부를 담았다.

1. 인민대중의 존엄과 권익을 절대적으로 옹호하는 정치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는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고 그들의 존엄과 권익을 절대적으로 옹호하는 정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가장 숭고한 임무로 여기는 우리 당은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관철하는 전과정에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데로부터 출발하고 모든것을 거기에 철저히 복종시켰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존엄과 권익을 절대적기준으로 삼고 그 실현에로 사회주의사회발전을 지향시켜나가며 인민이 바란다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고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진정한 인민사랑의 정치를 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이 인민대중의 존엄과 권익을 옹호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인민대중이 세계의 유일한 주인, 력사의 주체, 사회주의의 기초로서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이기때문이다. 또한 로동계급의 당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떠난 다른 요구와 리익이란 없으며 로동계급의 당의 계급적사명은 바로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하는데 있기때문이다.

인민의 존엄과 권익을 옹호하는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는 인민대중의 존엄과 권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을 당활동의 근본원칙으로 삼고 모든 로선과 정책을 인민들의 요구와 의사를 반영하여 수립하며 모든 활동을 인민들의 존엄과 권익을 옹호하고 보장하는데 지향시킨데서 표현된다.

당활동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이 철저히 구현되여 인민의 리익과 편의가 최우선, 절대시되고 인민의 존엄과 권리, 요구와 리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사업의 첫자리에 언제나 인민의 존엄과 리익을 놓고 그것을 위해 완강히 투쟁하는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에 의하여 가장 준엄한 난국에서도 인민들이 참다운 삶의 권리와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인민대중의 존엄과 권익을 절대적으로 옹호하는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력사는 곧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령도사이다.

1) 온 나라 아이들의 친부모가 되시여

어느해 겨울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는 전체 인민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한해가 다 저물어가도록 단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며칠동안 휴식하시도록 결정하였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목적지에 도착하시는 길로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였으며 황해북도 서흥군의 한 마을에서 학교에 갔다 돌아오는 아이들을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학생들을 가까이 부르시여 그들의 언손을 꼭 쥐여주시면서 어느 학교에 다니는가, 학교에 오갈 때 춥지 않은가고 물으시였다.

학생들은 춥지 않다고 대답을 올리였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이 입은 옷을 만져보시면서 이렇게 홑옷을 입고 왜 춥지 않겠는가고 못내 걱정하시였다.

드디여 무엇인가 결심하신듯 승용차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날의 일정을 바꾸시여 서흥군을 떠나 다른 군들에 가시여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옷차림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날 밤 우리 아이들이 외투도 없이 밖에서 놀고있다고 하시며 아프신 마음으로 종시 잠을 이루지 못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튿날 황해

북도 당 및 행정경제기관 일군협의회를 소집하시고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옷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새로운 과업을 주시였다.

회의를 마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이 당을 지지하는것은 당이 자기들의 어머니이기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들을 잘 입히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어머니라고 할수 있겠는가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를 마치시자 곧 평양으로 돌아오시여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소집하시고 농촌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옷문제를 풀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시였으며 몸소 학생옷생산을 지휘하시여 양력설까지 불과 한달남짓한 기간에 100만벌의 겨울솜옷과 모자를 생산하여 전국의 모든 농촌어린이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주체57(1968)년 조선인민군해병들이 나라의 령해에 불법침입한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나포한것과 관련하여 적들이 발광적으로 전쟁소동을 벌리던 해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학생옷의 질을 높일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얼마후에는 회의를 소집하시고 원쑤들은 당장 전쟁을 일으키자고 덤벼들지만 우리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입히는 문제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자고 뜨겁게 호소하시였다.

그리하여 정세가 전쟁접경에로 치닿던 시기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겨울양복과 솜외투, 겨울모자, 겨울양말과 겨울신발을 일제히 공급할데 대한 내각결정이 선포되게 되였다.

그해 7월 중순 어느날 어린이들의 겨울옷과 솜외투견본을 보아주시고 생산대책도 가르쳐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1월 어느날에는 몇명의 학생들과 어린이들을 부르시여 새로 생산된 옷을 입혀보시고 신발도 신겨보시였다. 오래도록 아이들의 모습을 보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이들의 옷생산과 공급에서는 자그마한 부족점도 나타나서는 안된다고 일군들에게 간곡하게 이르시였다.

그로부터 며칠후에 열린 어느한 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국적으로 성과적으로 끝낸 옷생산과 공급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총화해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을 더 잘 밀고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마음먹고 모든 아이들에게 옷을 잘 해입히자고 절절히 교시하시였다.

넉넉치 못한 나라살림살이이건만 많은 자금과 품을 들여 온 나라 아이들을 추울세라 더울세라 철따라 일시에 입혀 내세워주시고 아이들의 키를 크게 하시려 과일과 수산물을 정상공급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후대사랑은 그후에도 계속되였다.

2) 수도의 중심에 자리잡은 인민대학습당

조선의 수도 평양의 중심부에 위치한 **김일성**광장의 뒤쪽에는 전민학습의 대전당인 인민대학습당이 자리잡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중심광장에는 박물관이나 회관, 도서관, 문화궁전과 같이 인민을 위한 건물을 세워야 한다시며 그 자리를 아껴오시였다.

바로 그 자리에 전민이 학습하는 대도서관을 짓기로 결정하고 건설이 한창 진행중이던 주체69(1980)년 9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현장에 나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한 일군이 다른 나라들에서는 중앙광장에 중요한 국가기관을 앉히였다고 말씀올렸을 때 그이께서는 중앙광장이라고 하여 정부청사를 앉히는것은 조선식이 아니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중앙광장의 중심에는 인민들이 다 리용하는 인민대학습당을 앉혀야 한다, 중앙광장옆에 정무원청사를 앉힌것은 정무원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며 인민의 심부름을 많이 하라고 앉힌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이 리용할 고전미가 나면서도 웅장한 대도서관이 일떠섰을 때에 **김일성**도서관을 비롯하여 수십가지 도서관이름안이 제기되였지만

그이께서는 만류하시고 인민대학습당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시였으며 그 이름을 누구도 절대로 고치면 안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리하여 새로 지은 도서관에는 인민들이 그토록 붙이고싶어하던 **김일성**도서관이라는 이름대신 인민대학습당이라는 현판이 나붙게 되였다.

3) 인민들이 좋다는대로

주체49(1960)년 5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평양대극장건설장을 또다시 찾으시여 극장을 한바퀴 돌아보시고나서 무대부분 지붕이 아무래도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속에서는 저 지붕에 대하여 무슨 의견들이 제기되지 않았는가고 물으시였다.

많은 의견들이 제기되고있으나 지붕형태를 고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일군들이 동평양에 사는 한 로동자가 보내온 편지를 위대한 수령님께 올리였다.

그 편지에는 무대부분 지붕에 대한 의견이 적혀있었다.

이름없는 한 로동자의 편지를 다 읽어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옳다고, 인민들이 나쁘다면 다 나쁜것이고 인민들이 좋다면 다 좋은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극장의 주인이야 인민들인데 인민들이 좋다는대로 지어야 한다고 하시고는 지붕의 결함을 지적해주시고 손수 지붕형태를 그리시며 설계를 고쳐주시였다.

정전직후 평양시를 복구할 때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의 조언을 존중하시였다. 당시 건설부문 일군들은 플라타나스만 가로수로 심으려고 하였다. 당시 평양시복구위원회 위원장의 직책을 지니고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느날 평양시의 어느한 건설현장에 나가시였는데 로인들이 그이를 뵙고 평양은 예로부터 버들이 많아 류경이라고 하였는데

왜 버드나무를 심지 않는가고 질문하였다. 그들의 말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에 버드나무를 많이 심도록 하시였다.

4) 206가지 일용잡화주문목록

주체65(1976)년 7월 주체66(1977)년도 인민경제계획통계수자에 대한 문제가 토의되는 회의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뜻밖에도 일용잡화문제를 언급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해당 부문의 일군들이 그날 밤중으로 193가지나 되는 일용잡화주문목록을 만들었다.

일군들은 이것이면 정말 굉장하다고 생각하면서 목록을 수령님께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목록을 한장한장 번져가며 보아주시다가 일용잡화생산을 잘하자면 중앙과 도들에 생산계획지표부터 바로 주어야 하겠는데 얼핏 보기에도 편지봉투나 샤프같은것도 목록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 뒤두고 빠진것이 없는지 더 연구해보겠으니 후에 다시 토론하자고 하시였다.

그후 어느날 각이한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가게 되였다. 일용잡화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들어보시기 위해 위대한 수령님께서 데려오도록 하신것이였다.

목록을 보고 일상생활에서나 가정에서 필요한 품종들이 빠진것이 있으면 기탄없이 제기하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저마다 목록에서 빠진것을 찾아내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틔겨도 주시고 자신께서 생각하고계시던것을 알려주기도 하시며 목록에 재털이, 꽃병, 어항, 참빗, 손톱

깎개, 실내온도계, 습도계, 치솔곽, 책꽂이, 면도크림 등을 더 적어넣으시였다. 이렇게 되여 목록은 206가지로 늘어나게 되였다.

다음해 1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된 련합회의에서는 그해 일용잡화주문목록과 생산계획을 토의에 붙이였다. 국가계획위원회의 책임일군은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작성된것이고 해당 부문 일군들도 다 알고있으므로 별책으로 묶은 일용잡화주문목록을 그냥 통과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잡화는 인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데 어떻게 별책으로 설명도 없이 채택할수 있겠는가, 다른것은 몰라도 잡화만은 그렇게 채택할수 없으니 한 품종도 빼놓지 말고 목록을 그대로 천천히 읽으라고 하시였다.

회의장에 《숟가락, 저가락, 참빗, 꽃병, 손바늘》 하는 소리가 울려퍼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첩을 펼쳐놓으시고 잡화명세를 다시금 하나하나 적으시였다. 회의에 참가한 일군들모두가 적어나갔다.

일군이 목록을 다 읽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회의장을 둘러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용잡화생산은 당이 하나의 혁명과업으로 규정하고 내밀고있는 문제이니만큼 새해의 잡화생산계획만은 모두 손을 들어 결정하자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먼저 손을 높이 드시였다. 그러시고는 오늘의 이 결정을 더욱 의의깊게 하기 위하여 박수로 환영하자고 하시며 선참으로 박수를 쳐주시였다.

이윽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늘 결정으로 채택한 일용잡화생산계획에 대한 집행정형총화는 앞으로 인민들앞에서 인민의 평가에 기초하여 짓자고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5) 황금으로 제방을 쌓더라도

황해북도 미루등에서 제일 귀한것은 물이였다. 땅을 적실 물은 고사하고 타는 목을 추길 물 한모금도 얻기 힘들어 쌀값보다 물값이 더 비쌌다는 미루등이였다. 여러갈래의 가지흐름을 가진 례성강을 옆에 끼고도 해발고가 높은 미루등판에 물을 퍼올릴 도리가 없어 한뉘 물고생이란 물고생은 다하면서 살아온 미루벌사람들이였다.

어느해 여름날 물에 대한 이 고장 사람들의 가슴아픈 사연을 헤아리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루등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잡관목 뒤엉킨 제우재봉에 오르기도 하시고 험한 개울가에 내려가시여 물량도 가늠해보시면서 몸소 오늘의 저수지자리를 잡아주시였다. 흐르는 강물을 수백m나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방대한 공사과제가 나섰다.

그이께서는 나라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미루벌의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낄것이 없다고 하시며 황금으로 제방을 쌓더라도 꼭 저수지를 건설해주자고 하시였다. 그이의 인민사랑에 의하여 례성강과 남강의 물이 수백m나 높은 등판으로 치달아 흘러들게 되였다.

6) 세쌍둥이를 위해 날은 비행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잃은 슬픔이 온 강산에 차넘치던 주체83(1994)년 7월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분계연선지구의 어느한 마을에 태여난 세쌍둥이가 생명이 위험하다는 보고를 받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력한 의료진과 함께 비행기를 보내여 세쌍둥이를 평양산원으로 옮겨다 소생시킬데 대한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한대의 비행기가 분계연선지구의 자그마한 마을을 향해 날아갔다. 비행기에는 세쌍둥이를 소생시킬수 있는 모든 설비들이 실려있었다.

비행기가 땅에 내렸을 때 착륙장에 모여온 마을사람들과 인민군군인들은 울음바다를 펼치였다.

세쌍둥이의 어머니인 강명화녀성은 위대한 수령님을 잃고 지금 온 나라가 슬픔에 울고있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 산골마을애들이 뭐라고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시는가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다.

세쌍둥이의 아버지인 조선인민군 군관 정영섭동무는 인민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주체의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품이 없다면 이런 은혜를 상상도 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부부는 세쌍둥이를 위대한 장군님을 결사보위하는 총폭탄으로 키우려는 순결한 충성의 맹세를 담아 아이들의 이름을《총일》,《폭일》,《탄일》이라고 지었다.

7) 조용히 찾으신 옥류관

주체54(1965)년 3월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옥류관을 찾으시였다.

손님봉사에 드바쁘던 옥류관의 접대원처녀는 수수한 차림새를 하시고 현관으로 들어서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정중히 인사를 올리였다. 접대원처녀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몰래 들어온다는것이 그만 동무에게 들켰다고 하시며 환히 웃으시였다. 그러시고는 곧바로 손님들이 붐비는 일반식사칸으로 들어가시여 맨 구석쪽의 식탁에 앉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매표구에서 손수 끊어오신 국수표를 접대원에게 주시며 옥류관의 국수질을 알아보기 위해 오늘 손님들과 같이 국수를 먹어보자고 한다고, 자신께서 왔다는것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시였다.

그리고 다른 손님들과 꼭같은 국수를 가져올것을 약속하자고 귀띔하시였다.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어 안타까이 입술만 깨물고있던 접대원처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시금 재촉하시여서야 하는수없이 일반손님들과 꼭같은 국수를 그이께 가져다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접대원에게 이만하면 괜찮다고, 마음이 놓인다고, 옥류관에서는 언제나 국수의 질을 이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고 따뜻이 이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실 때처럼 조용히 옥류관을 떠나시였다.

8) 인민들부터 생각하시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언제인가 일군들에게 한 해외동포가 그이께 삼가 올린 모포를 보여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안산의 아동단원들에게 자신께서 쓰시던 모포를 덮어주신지도 벌써 50년이 되여오는데 우리는 아직 인민들에게 고급모포를 넉넉히 주지 못하여 마음이 괴롭다고 하시면서 이런 모포를 만들어 인민들에게 안겨주자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 모포를 가지고가서 견본으로 참고하면서 생산해보라고 이르시였다.

해외동포들의 지성을 생각해서라도 그 모포만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용하실것을 간청드리는 일군들에게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아직도 이런 모포를 보지도 못했는데 혼자서 덮은들 마음이 편하겠는가고, 우리가 이런 모포를 쾅쾅 만들어 인민들에게 안겨줄 때 마음놓고 덮겠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속에 따스하고 포근한 마안산모포가 생산되게 되였다.

9) 달라진 네거리풍경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생전에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였다.

이 구호에는 인민을 위한 사랑의 정치를 펼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관, 정치리념이 집약되여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군들에게 교통질서와 관련한 가르치심을 주실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네거리에서 인민들이 많이 리용하는 뻐스보다 승용차를 먼저 통과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혁명과 건설을 해나가는 우리 나라에서 인민적인것, 대중자신의것이 우선시되지 않으면 안된다,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지 않게 인민대중을 경시하는 규정들을 다 고쳐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후 도시의 네거리풍경이 달라졌다.

10) 사람중심전법

황해제철소(당시)의 자동화가 한창이던 주체62(1973)년 4월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한 일군으로부터 황철을 자동화하는데서 소요되는 자금이 막대하기때문에 중요공정들만 자동화할것을 예견하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로동계급을 위하여 쓰는 돈은 계산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자동화전법은 주체의 자동화전법, 사람중심전법이라고 교시하시였다. 돈이 많이 든다고 우리가 오래된 공장을 자동화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일하는 용해공들은 언제가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이께서는 사람중심의 주체사상의 요구가 전면적으로 구현된 우리 사회에서는 오래된 공장도 철저히 자동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시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돈계산보다도

먼저 황철로동계급을 힘든 일에서 해방할 생각을 하자고 하시며 황철에 다시 내려가 돈에 구애되지 말고 다시 자동화를 위한 통이 큰 투자방향을 세울데 대하여 일깨워주시였다.

인간을 제일로 존중하고 로동계급을 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의지에 의하여 마침내 황철의 자동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게 되였다.

11) 군용비행장을 온실농장으로

주체107(2018)년 7월 함경북도사업을 현지에서 정력적으로 지도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어느날 경성군에 자리잡은 비행장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여름날 정오의 따가운 해볕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푸른 하늘아래 아득히 펼쳐진 비행장을 만족하게 바라보시였다. 그러시다가 어떻게 하면 함경북도인민들에게 사철 푸르싱싱한 갖가지 남새를 보장해주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많이 생각해오다가 여기 비행장을 내고 현대적인 대규모온실농장을 꾸릴 결심을 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만한 면적에 온실농장을 건설하면 함경북도인민들의 남새수요를 충족시킬수 있을것이라고, 현대적인 온실농장을 건설하는것은 자신께서 인민을 위하여 제일 하고싶었던 일이라고 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함경북도인민들의 남새문제가 풀리게 되였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이렇게 인민을 위한 보람있는 일을 찾아할 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시였다.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며 인민을 위해 그 누구도 상상 못할 대용단을 내리신 그이께서는 현대적인 온실농장건설을 인민군대에 맡겨주시였다.

군용비행장을 통채로 내여주도록 하시고 인민군대가 현대적인 온실농장을 훌륭히 건설하여 함경북도에 넘겨주도록 은정깊은 조치까지 취해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일군들은 감격하여 마음속으로 웨치였다.

군대가 비행장에 대규모온실농장을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넘겨주는 나라는 오직 조선뿐이라고.

12) 300알 사과나무와 국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6(2017)년 9월 20일 황해남도 과일군 신대농장 제10작업반의 사과밭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주렁진 사과를 한알한알 만져보시며 사과가 얼마나 달렸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루당 평균 200알, 최고 300알 달린 나무도 있다는 군책임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사과나무마다 땅이 꺼지게 열매가 달렸다고 만족해하시였다.

붉게 익은 한알의 사과를 따드신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과일군에 펼쳐진 과일대풍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고 생각하니 쌓였던 피로가 다 가셔지는것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과수연구소를 돌아보시였다. 연구소를 돌아보시며 과수를 과학화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복도에 나서신 그이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시고 중간벽면을 바라보시였다. 그이의 시선이 가닿은 벽면에는 지구를 박차고 솟구쳐오르는 인공지구위성이 그려져있었다.

그이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군책임일군에게 왜 인공지구위성을 그렸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그가 인공지구위성이 국력의 상징이기때문에 그렸다고 말씀올리였다. 그이께서는 인공지구위성보다 한그루에 300

알 달린 사과나무를 그렸으면 더 좋았을걸 그랬다고, 그런 사과나무들이 핵폭탄보다 더 위력하다고 말씀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파일대풍이자 인민의 기쁨이고 인민의 웃음소리의 높이가 국력평가의 기준이라는 철리를 다시금 뼈속깊이 새겨주는 그이의 명언이였다.

13) 99%와 1%

주체102(2013)년 1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를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대회에서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을 탓하지 않고 더 마음을 쓰며 사랑과 정으로 품어주고 아픈 상처를 감싸주며 또다시 일으켜 내세워주는 품이 어머니 우리 당의 품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설사 엄중한 과오나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에게 99%의 나쁜 점이 있고 단 1%의 좋은 점, 량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 량심을 귀중히 여겨야 하며 대담하게 믿고 포섭하여 재생의 길로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을 탓하지 않고 더 마음을 쓰는 어머니와도 같이 그이께서는 사회와 집단앞에 죄를 짓거나 과오를 범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1%의 량심을 믿고 사랑과 정으로 품어안아 내세워주신다. 그이의 품에서 불건전한 사고방식과 불미스러운 생활로 하여 부모와 형제, 친척, 친구들에게서조차 버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난날을 뉘우치고 사회와 집단을 위한 참된 삶의 길에 들어서고있으며 영웅으로, 나라의 정사를 론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자라났다.

99%와 1%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숭고함을 직감할수 있게 하는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대명사이다.

14) 최중대정책, 최고의 숙원

주체110(2021)년 6월 17일 수도 평양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 3일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당의 육아정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의정이 토의되였다.

회의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으며 수천수만금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을 지어주는것은 당과 국가의 최중대정책이고 최고의 숙원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힘겨울수록 어린이들에게 정성을 더 쏟아붓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미래를 향하여 완강하게 나아가는것이 우리 혁명의 전진방식, 발전방식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땅에 태여나는 아이들, 자라나는 후대들이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면 앞으로 20년, 30년후에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 더욱더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이 넘치게 되고 공화국의 국력이 장성강화되게 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아이들의 성장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기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모든 일군들이 어린이들의 친부모가 된 심정에서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을 잘 먹이는데 각별한 관심을 돌리며 당의 육아정책관철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것으로써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절절히 강조하시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총비서동지의 제기를 크나큰 충동과 격정속에 심의하고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속에 관련결정서를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15) 무엇을 하나 해놓아도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내부마감공사가 한창 진행되고있는 창전해맞이식당을 돌아보실 때 있은 일이다.

2층을 돌아보시기 위해 계단으로 향하시던 그이께서는 승강기가 설치되여있는것을 보시고 저으기 만족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비록 층수는 높지 않았지만 인민들의 편의를 위해 승강기를 설치해놓은것이 못내 기쁘시였던것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늙은이들과 영예군인들, 잘 걷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린이들을 위하여 승강기를 설치한것은 잘하였다고 치하해주시였다.

이윽하여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는 무엇을 하나 해놓아도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에서 모든것을 따져보고 실리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주체101(2012)년 1월 어느날 건설중에 있는 만수교고기상점을 돌아보실 때에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건축물의 모든 요소들을 인민들의 생활상요구에 맞으며 그들의 편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할수 있게 형성하는것은 우리 당의 건축미학사상의 기본요구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16) 아이들이 밝게 웃어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5(2016)년 12월 6일 강원도에 새로 일떠선 소년단야영소를 찾으시였다.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야영소를 최상의 수준에서 새로 개건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형성안도 여러차례 지도해주시며 개건공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완공된 야영소를 찾으신것이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아이들을 위한 과외교양기지가 또 하나 일떠선것이 너무 기뻐 이렇게 왔다고, 자신께서는 아이들을 위한 창조물이 일떠섰다는 보고를 받을 때가 제일 기쁘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야영소의 여러곳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시였다.

2층의 계단에 이르시여 계단란간도 흔들어보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려관이나 합숙처럼 어른들이 생활하는 곳은 계단란간이 이 정도로 되여도 일없지만 야영소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이므로 계단란간이 든든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아이들에게 하나를 주시면 열, 백을 더 주고싶으신 친부모의 심정을 안으시고 침대의 사물함도 열어보시고 세면장에까지 들리여 사소한 부족점도 있을세라 심혈을 기울여 보살펴주시며 오랜 시간 야영소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그날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아이들이 밝게 웃어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는것을 항상 명심하고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고 굳게 믿는다고 말씀하시였다.

17) 바르고 준비해온 숙원사업

주체110(2021)년 3월 23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에 참석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착공식에서 《5만세대 살림집건설로 우리 수도를 다시한번 웅장하게 변모시키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연설에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5개년계획기간에 전국적으로 살림집

건설을 힘있게 내밀면서 수도에만도 5만세대의 살림집을 일떠세우며 이를 위해 매해 1만세대씩 건설할것을 결정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수도 평양에 5만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건설하는것은 수도시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조선로동당이 크게 벼르고 준비해온 숙원사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에서 그 막중한 과제를 어떤 불리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감당해야 할 영예로운 혁명과업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더욱 철저히 구현하는 원칙에서 건축발전구상과 건설정책을 재확정하였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설계부문과 시공단위, 건설감독부문앞에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으며 건설에 동원되는 군인들과 건설자들의 건강과 생활을 보살피기 위한 후방보장사업과 자재보장대책에 이르기까지 다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국가가 펼치는 대규모의 살림집건설작전은 어떤 경제적리득을 위한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국가의 재부와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의 결과가 고스란히 근로자들자신의 복리로 되게 하는 숭고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어려울수록 인민을 더 뜨겁게 품어안으시고 가까이 있는 인민과 멀리 있는 인민을 가리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수도와 지방들에서 현대적이고 문명한 살림집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 매해 수많은 세대들이 새집에 입사하는 경사가 펼쳐지고있다.

2. 인민대중에게 의거하는 정치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정치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은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굳게 믿고 인민대중에게 철저히 의거하는 주체의 령도방식으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왔습니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인민에 대한 믿음의 정치를 펼치고있다.

조선로동당이 인민대중에게 의거하는 령도방식으로 혁명과 건설을 하는것은 인민대중이 모든 물질적재부를 창조하고 사회적변혁을 일으키는 가장 지혜롭고 힘있는 존재, 혁명과 건설의 추동력이기때문이다. 또한 인민을 믿고 그에 의거하면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을 멀리하고 그의 버림을 받으면 백번 패한다는것은 조선로동당활동의 기본출발점, 최고의 원칙이기때문이다.

인민에게 철저히 의거하는 조선로동당의 정치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마음속생각을 헤아리고 반영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며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그들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폭발시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나간데서 표현된다.

조선로동당의 믿음의 정치가 분출시킨 인민대중의 높은 정신력과 무한한 창조력앞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전대미문의 제재와 봉쇄도, 비렬한 내부와해책동도 맥을 추지 못하였으며 조선에서는 경이적인 기적들이 련이어 창조되였다.

인민대중을 가장 힘있는 존재로 보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조선로동당은 지난 수십년간 전례없는 력사의 온갖 도전을 물치치며 위대한 국가를 세우고 위대한 인민을 키워냈다.

1) 사랑으로 이긴 전쟁

주체40(1951)년 9월 2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몸소 최전연에 나가시여 1211고지방위부대지휘관들과 담화를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의 전투원들은 모두다 귀중한 보배들이며 혁명동지들이라고, 군인들의 생활을 잘 보살펴주는것은 지휘관들의 신성한 의무라고 하시면서 지휘관들은 군인들이 먹고 입고 휴식하는 문제로부터 그들의 전투행동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생활을 육친의 심정으로 세심히 보살펴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군인들이 비타민결핍증에 걸리지 않도록 할데 대하여서도 강조하시고 자신께서 콩을 보내주도록 하겠으니 그것으로 콩나물을 길러 군인들에게 채도 메워먹이고 국도 끓여먹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허약자들을 위하여 떡쌀을 보내주도록 하겠으니 그들에게 떡을 해먹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전연의 싸우는 고지들, 공장과 농촌마을들을 찾으시여 군인들과 인민들의 생활을 극진히 보살펴주시였다.

전선의 용사들을 위하여 휴양소들을 세워주시고 우편물수송차도 조직해주시였으며 추운 날에는 고지의 용사들에게 따끈한 밥과 국을 먹이도록 해주시였다. 전시에 무상치료제를 실시하도록 하시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하여 모든 가정들에 보충미를 공급하도록 하시였으며 전재고아들을 위한 각급 학원들도 내오도록 하시였다. 전선에 탄약과 무기를 나르는 차들을 돌려 후방인민들의 겨울김장을 위한 소금을 수송하고 아이들을 위한 교과서를 먼저 나르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전쟁의 준엄한 시기에 돌려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은 그대로 군인들과 인민들의 가슴에 뜨겁게 흘러들어 그들을 고마운 제도와 수령을 보위하기 위한 성전에 떨쳐나서게 하였다. 마침내 조선인민은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 할수 있는 준엄한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하였다.

미제우두머리들은 조선전쟁에서의 참혹한 패배를 스스로 인정하였다.

전 미국대통령이였던 트루맨은 조선전쟁은 급속히 종결된 전쟁이라는 말을 패배로서 급속히 종결된 전쟁이라고 고쳐야 한다고 하였고 이전 국무장관 마샬은 신화는 깨여지고말았다, 우리는 남들이 생각하는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아니였다, 우리는 조선에서 심대한 타격을 당하였다고 비명을 질렀다.

정전협정문에 서명한 《유엔군》사령관 클라크는 정전협정조인후 이번 전쟁에서 미국은 력사상 처음으로 승리없는 휴전에 조인을 하였다, 그것은 아쉽고 통탄할 일이였다고 하였다.

1953년 7월 27일 UPI통신은 미국의 수도 워싱톤에서는 군중시위도, 큰 기쁨도, 거리들에서는 축하모임도 없었다고, 이것은 이번 십자군원정에서 아이젠하워와 그 동맹국력량이 쟁취한 승리는 아니였다고 보도하였다.

2) 대중운동

대중운동은 조선로동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다.

인민대중을 가장 지혜롭고 힘있는 존재로 보고 그들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내세우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여러가지 형태의 대중운동을 발기하시고 조직령도하시여 조선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75(1986)년 5월 31일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건설의 력사적경험》에서 조선혁명의 전 력사적기간에 전개된 대중운동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그이께서는 대중운동은 대중동원의 위력한 방법이며 대중의 집체적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는 혁명적사업방법이라고, 조선로동당은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혁명의 요구와 대중의 혁명적지향, 준비정도에 맞게 여러가지 형태의 대중운동을 발기하고 적극 추진하여왔다고 밝히시였다.

그이께서는 해방후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벌려 일제사상잔재와 봉건사상잔재를 청산하고 근로자들을 건국사상으로 무장시켜 새 조국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으며 전후 사회주의건설시기에 천리마운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뒤떨어진것을 쓸어버리고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쳐나갔다고 쓰시였다. 그리고 혁명발전의 새로운 현실적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적극 다그쳐 공산주의적인간개조사업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같이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고있다고 쓰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의 경험에 의하면 대중운동을 조직하고 지도하는데서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와 대중의 정치사상적준비정도에 맞게 대중운동의 형태를 바로 규정하고 투쟁목표와 과업을 뚜렷이 제시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밝히시였다.

3) 강재증산과 가정의 행복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45(1956)년 12월말 강선제강소(당시)를 찾으시여 이곳 로동계급에게 강재증산을 호소하신 후 일정에 없던 협의회를 여시였다.

수십명이나 되는 협의회참가자들의 대부분은 녀성들이였다.

강재문제로 제강소에 찾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찌하여 자기들 가정부인들까지 만나주시는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가늠이 가지 않아하던 강선의 녀성들은 협의회 기본문제가 제강소로동자들의 가정생활문제라는것을 알았을 때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정하신 어조로 녀성들에게 어서 생활에서 애로되는 문제들을 이야기하라고 이르시였다. 그이께서 거듭 애로되는 문제들을 이야기하라고 이르시여서야 한참만에 한 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수령님께 자기 인민반의 38세대중 3세대가 어머니가 없거나 불구로 운신을 못하는 가정들인데 아이들끼리 세간살이를 하다나니 식량부족을 겪고있다고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안색을 흐리시며 가슴아픈 어조로 아이들끼리 세간살이를 하자니 얼마나 힘들겠는가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런 집들에 대해서는 방임해두지만 말고 이웃집들이나 녀맹조직들에서 돌봐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에 가슴이 확 풀린 녀인들이 앞을 다투어 일어나 별의별 문제들을 다 말씀올리였다.

로동자들이 퇴근할 때까지 상점문을 닫지 말고 봉사하도록 해주면 좋겠다는것, 녀성들도 기본로력으로 일하였으면 한다는것, 아이들의 옷을 만들어 상점에서 팔아주었으면 좋겠다는것…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간낸 딸자식의 살림살이를 보살펴주는 부모의 심정으로 그 모든 제의들을 받아들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두녀성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곤난하다고 가만히 앉아있을것이 아니라 모두가 떨쳐일어나 자체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해나가야 한다, 가내협동조합을 조직하여 부식물문제를 해결하며 집짐승을 길러야 한다, 가정에서 쓰다남은 돈을 저금하는 운동을 전 군중적으로 벌리며 여러가지 사회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고.

협의회를 마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가정들에서 행복이 넘쳐나면 날수록 강철과 강재생산은 더욱 높아진다, 그것은 로동자들이 가정일에 대해서 아무런 근심걱정이 없어야 자기 맡은 사업에서 더 높은 열성을 발휘할수 있기때문이라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어려울 때일수록 로동자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최선을 다해 돌봐주어야 하며 로동자들이 가정일에 대하여 아무근심걱정이 없어야 맡은 일에서 혁신을 일으킬수 있다는것을 깨우쳐주시였다.

그후 강선에서는 가두의 전체 녀성들이 강재증산에 발벗고나섰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은덕에 보답하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강선의 녀성들은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가내협동조합들을 뭇고 생활을 자체로 이악하게 꾸리며 강재증산을 위해 애쓰는 남편들을 힘껏 도왔다.

천리마대고조의 열풍이 온 강선땅에 세차게 일어번지였다.

마침내 강선의 로동계급은 세상을 깜짝 놀래우는 영웅적위훈을 창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후날 그에 대하여 회고하시면서 강선제강소의 분괴압연기도 그전에는 겨우 6만t의 강재를 생산한데 지나지 않았다, 그

러나 로동자들이 애국심을 발휘하여 예비를 찾은 결과 같은 분괴압연기에서 10여만t을 생산하였다고 교시하시였다.

4) 전 국가적으로 진행된 군중토의사업

조선에서 제1차 5개년인민경제계획을 세우던 때의 일이다.

나라를 하루빨리 인민의 행복이 꽃펴나는 사회주의락원으로 일떠세우시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첫 5개년인민경제계획을 세워가던 일군들은 일시 난관에 부닥치게 되였다.

장기계획을 세우는 사업을 처음 해보는데다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방향에 따라 5년동안 달성해야 할 총적목표와 중요지표들을 설정해놓고보니 과연 그 높은 지표들을 수행할수 있을가 하는 우려심이 그들을 주저하게 하였던것이다.

당시 계획수행을 확고히 담보할만 한 자금, 자재도 충분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큰 나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다가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대주의, 교조주의자들의 궤변이 울려나왔다.

한 일군으로부터 이러한 실태를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내세운 목표는 높다고, 그러나 우리는 간고분투하여 반드시 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서 큰 힘을 얻은 일군들이 다시 분투하여 마침내 5개년계획예비안을 자체의 힘으로 작성하게 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부 나라들에서 재더미우에서 방금 일어서기 시작한 조선이 그렇게 높은 목표를 수행할수 없다는것, 그것은 공상에 지나지 않는 목표라고 시비해나섰다.

이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는 5개년계획예비안에 대하여 남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 인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우리 인민들과 토의하여 예비를 더 찾아내자고 교시하시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한 회의에서 예비는 대중속에 있다고 하시면서 5개년계획예비안에 대한 군중토의사업을 전 국가적으로 진행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앙의 책임일군들로 조직된 지도소조를 각지에 파견하시는 한편 자신께서 대안과 남포지구의 공장, 기업소들에 나가시여 몸소 군중토의사업을 지도해주시였다.

언제나 인민의 힘과 지혜를 믿고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는 빛나는 결실을 안아왔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을 새겨안은 인민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하여 군중토의사업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고 제1차 5개년인민경제계획은 더 동원적이고 과학적인 계획으로 완성되였다.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제1차 5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을 위한 투쟁에 총궐기해나섰으며 그 장엄한 투쟁속에서 이 땅우에 전설의 천리마가 나래쳐오르게 되였다.

5) 총동원령을 내려야 하겠다

주체55(1966)년 8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도지구 간석지건설장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섬에 도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꿎게 내리는 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동뚝으로 향하시였다. 동뚝의 밑폭과 높이는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시고나서 무성한 갈발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이 공사는 대단히 크고 위대한 자연개조이라고, 갈발건설에 대한 총공격명령을 내려보자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잠시후 망원대에 오르시여 쌍안경을 드시고 갈밭을 둘러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기에 와보니 정말 내 가슴이 탁 트인다고 하시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자연부원인가고, 후대들에게 넘겨줄 좋은 기념물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이윽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직 제방을 못 막은 구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시고 그것이 제일 힘든 구간인가고 물으시였다.

일군들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바깥동뚝을 완성하기 위한 총동원령을 내려야 하겠다고, 청년발전소를 건설하듯이 《비단섬건설을 완성하자!》라는 구호를 들고 갈밭건설을 전국의 청년들에게 호소하여 완성하여야 하겠다고 힘있는 어조로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땅이 질면 걸어서라도 가보자고 하시며 험한 감탕길을 앞장서 걸으시였다.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풀어주시려 비바람사나운 감탕길을 헤치시며 그이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간석지건설에서와 갈재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리하여 서해의 바다기슭에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의 기상이 나래치고 어제날 쓸모없이 버림받던 땅이 인민을 위한 비단섬으로 변모되게 되였다.

6) 기적창조의 근본열쇠

조선에서 6개년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할 때의 일이다. 6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관건적해인 주체63(1974)년에 수행하여야 할 계획은 참으로 아름찬것이였다.

일군들은 사업목표를 돌파하기 위한 문제를 놓고 토의를 거듭하였으나 신통한 방도를 찾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일군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부르심을 받게 되였다.

일군들을 반갑게 맞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계획초안을 료해하시다가 작성된 계획초안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어떤것인가고 물으시였다.

한 일군이 작성된 계획을 종합해보니 그 목표가 너무도 아름찬것이여서 미처 실천적방도를 찾지 못하고있는데 대하여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였다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 꾸려진 경제토대와 생산잠재력뿐 아니라 인민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와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을 믿으시고 방대한 목표를 제시하시였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확신에 넘치신 어조로 문제해결의 고리는 군중을 믿고 그들의 힘을 발동시키는데 있다고, 계획이 방대하고 어려울수록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주체63(1974)년 10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경제계획수행을 위해 70일전투를 발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처럼 짧은 기간에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해야 하는 70일전투에서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로 발양시키기 위한 사상전을 확고히 앞세우도록 하시였다.

70일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전국각지에서 일제히 대사상전이 벌어졌다.

그 어디에서나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심어주고 70일전투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정치선전, 경제선동이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벌어졌다.

사상전의 불길속에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생활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고 사업태도와 일본새가 달라져 날에날마다 비약의 폭풍이 세차게 몰아쳤다.

하여 그해의 인민경제계획이 완수되고 새로운 천리마속도, 70일전투속도가 창조되였으며 속도전의 새 력사가 펼쳐졌다.

7) 농사일의 선생은 농민

주체60(1971)년 7월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평양시교외에 자리잡고있는 한 농장의 일군을 몸가까이 불러주시였다.

당시 농장에서 물문제때문에 농사에서 커다란 애로를 겪고있다는것을 아시게 되시였던것이였다.

농장에서는 부족한 물문제를 자체로 해결해보려고 자그마한 저수지를 몇개 만들었으나 워낙 물이 바른 고장이여서 농사에 쓸 물을 넉넉히 잡아놓을수 없었다.

수원이 풍부한 대동강이나 보통강물을 끌어오기 위한 공사를 자체로 하자고 시도했지만 막대한 로력과 자재가 드는것은 물론이고 서뿔리 공사를 벌려놓았다가는 농사도 변변히 짓지 못할것 같았다.

그래서 농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있었다.

농장의 이러한 실태에 대하여 듣고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볍게 웃으시더니 지금 우리 일군들이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때문에 일을 잘하지 못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며칠전 어느 농촌길을 지나시다가 한 농장원을 만나시였던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논두렁에서 한 농장원이 열심히 물주머니를 만들고있는것을 보게 되시였다.

그곳으로 다가가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장원에게 무엇에 쓰자고 그것을 만드는가고 물으시였다.

농민은 논을 적시고 나온 물을 그냥 흘려보내기가 아까와서 물을 잡아두었다가 다시 쓰려고 그런다고 대답을 드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농장에서야 큰 저수지물을 쓰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고 다시 물으시였다.

그러자 농민은 일군들이 저수지나 강이 없으면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다 쓰고 남은 물을 잡아두었다가 양수기나 강우기로 다시 끌어올리면 논도 적시고 강냉이발관수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때부터 자신께서는 농사를 짓자면 일군들을 만나는것이 아니라 농민들을 만나야 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다고 하시면서 농사일에서는 농민들이 선생이라고 하시였다.

이윽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에게 농장에서는 논을 적시고난 물을 어떻게 하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이 미처 대답을 못드리자 그이께서는 지금처럼 저수지물을 한번만 쓰고 다 강에 흘려보내지 말고 그 농민이 말한대로 양수기로 다시 끌어올려 쓰면 물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고 하시였다.

일군은 흥분된 심정으로 그렇게 하면 물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는 일군을 정겹게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형편에서는 그런 공사를 하자면 아름찬 일이라고 하시며 앞으로 농장자체의 력량을 잘 타산해보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그러시면서 농민들에게서 배우면서 일해나갈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8) 뜻깊은 첫 부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던 때에 있은 일이다. 어느날 한 일군의 사무실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갈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다가 마감

에 한가지 부탁이 있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만나겠으니 꼭 알려주기 바란다고 교시하시였다.

그후 어느날 깊은 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의 사무실을 또다시 찾으시고 낮에 자신을 찾아왔던 일군들이 더 없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이 없다고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지나치게 늦게까지 일하지 말고 제때에 퇴근하라고 그 일군에게 이르시였다.

일군은 새벽공기를 마셨더니 정신이 번쩍 든다고 그이께 무랍없이 말씀올렸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새벽공기가 참 좋다고, 이 공기야말로 혁명가들이 먼저 마시는 공기라고 하시면서 창문쪽으로 다가서시였다.

아름다운 수도의 야경을 한동안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깊은 밤에 아이들이 마음놓고 잠잘수 있는것은 자애로운 어머니의 따사로운 품이 있기때문일것이라고, 인민들은 이런 따뜻한 품에 비유하여 우리 당을 어머니당이라고 한다고 하시였다.

그런데 우리 당일군들속에는 어머니다운 품성을 소유하지 못하고 일하는 동무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이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당은 당원대중의 무궁무진한 사상정신적힘을 최대한으로 발동하여 당앞에 나선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하자고 하는것이다, 당일군들은 당원들이 자각적으로 찾아와 의견을 말할 때 제일 기쁘게 생각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자신께서는 당원들이 자각적으로 찾아와 자기의 심정을 털어놓고 말할 때가 제일 기쁘다, 그들은 우리가 포착하지 못한것을 제때에 알려주며 모르는것을 깨우쳐주기도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일군은 그이께서 하신 첫 부탁에 과연 어떤 뜻이 담겨져있고 그이께서 그 부탁에 왜 그처럼 큰 의의를 부여하시였는지 조금이나마 깨달을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계속하여 이런 뜻깊은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로동자, 농민을 만나시면 아이들이 옷은 타입었는가, 애로되는것은 어떤것들인가 일일이 물어보시고 일군들에게는 공장이 잘 돌아가는가, 후방사업은 제대로 되고있는가 이렇게 여러가지 문제들을 알아보신다. 그 과정에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것을 당정책에 구현해나가신다. 우리는 수령님의 이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야 하며 수령님의 사업방법대로 일해나가야 한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에게 우리 함께 손을 잡고 당사업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자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9) 콕스가 죽었다고 생각하라

나라의 기간공업의 하나인 금속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생산을 자체의 원료, 연료로 하는것이다. 철을 녹일 콕스탄이 없는 조선이여서 철생산을 주체화하는것은 인민경제발전의 전 기간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였다. 그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찾으시여 먼 옛날 우리 선조들은 콕스탄이 없어도 쇠물을 녹였는데 콕스가 없어 철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법은 없다,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람은 주체철을 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나 콕스에 대한 미련을 좀처럼 버리지 못하는 제철소일군들에 의하여 주체철생산이 성공하지 못하고있었다.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위해 그토록 심혈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마음을 그대로 안으시고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찾고찾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날 콕스에 미련깊은 일군들에게 절절하게 그러면서도 단호하게 교시하시였다.

콕스와 리혼한것이 아니라 콕스가 죽었다고 생각하라!

주체조선의 넋과 기상이 맥박치는 그이의 열렬한 애국호소에 제철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분발하여나섰다.

당정책이 절대적인 진리임을 깨달은 그들은 자기의 슬기와 힘을 믿고 일떠서 마침내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였다.

10) 다시 열린 협의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언제인가 대형산소분리기를 자체로 만들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락원기계공장(당시)을 찾으시였다.

이날 공장을 다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형산소분리기를 완성할 대책을 의논해보자고 하시며 공장일군협의회를 마련하시였다.

대형산소분리기생산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헤아리시고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날이 어두울무렵에야 공장을 떠나시였다. 그런데 웬일인지 위대한 장군님께서 타신 승용차가 공장정문밖을 벗어나 얼마간 달리다가 다시 공장으로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한 일군이 다가와 그 사연을 이야기해주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차가 공장정문을 벗어나 도로에 들어섰을 때 수행일군은 공장지배인이 넘겨준 문건을 펼쳐들었다.

그것은 공장의 일군들이 대형산소분리기와 관련한 협의회에서 제기하지 못하고 그 일군에게 제기한 후방사업과 관련한 문건이였다.

그가 문건을 보고있는것을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것이 무엇인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은 그 문건을 위대한 장군님께 드리였다.

일군이 올리는 문건을 읽어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안색을 흐리시며 다시 공장으로 가자고 말씀하시였다.

그리하여 이날의 두번째 협의회가 열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시 모여앉은 협의회참가자들을 둘러보시다가 차에서 보시던 문건을 내놓으시며 가다보니 동무들이 나에게 제기 못한 문제들이 있는것 같은데 다 이야기하라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가 종이장이나 받아가지고갈바에야 무엇때문에 왔겠는가고, 밤이 깊어도 좋으니 다 제기하라고 이르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밤이 퍽 깊도록 로동자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사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속속들이 다 풀어주시고서야 다시 승용차에 오르시였다.

불보다 더 뜨거운 위대한 사랑과 믿음은 락원로동계급의 심장에 불을 지피였다.

그때로부터 짧은 기간에 락원의 로동계급은 마침내 대형산소분리기를 훌륭히 만들어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11) 믿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7(2018)년 8월 17일 례년에 없는 폭염속에서 불과 40일만에 또다시 삼지연시건설장을 찾아주시였다.

인민들과 돌격대원들이 거둔 성과가 크다고 못내 만족해하시며 그이께서는 건설이 이렇게 빨리 추진되고있는것은 216사단안의 각급 건설단위들이 경쟁적으로 건설을 다그치고있기때문일것이라고 하시며 사회주의경쟁이 좋기는 좋다고 환히 웃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경쟁에서 제일 뒤떨어진 단위는 어디인가고 물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시꾸리기에 떨쳐나선 건설자들의 기세가 대단한데 아쉽게도 618건설려단 함경남도련대가 사단의 제일 마지막자리를 차지하고있었다.

일군들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618건설려단 함경남도련대가 제일 뒤떨어졌다고 하는데 잠재력이 있는 도가 떨어진것을 보면 공사과정에 무슨 애로가 있는것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사실 건설장의 전체 돌격대원들과 마찬가지로 함경남도련대 돌격대원들의 기세도 만만치 않았다. 그런데 건설부지가 산중턱인데다 온통 감탕판이고 워낙 공사량이 방대한지라 남들이 골조공사를 끝낼 때까지 령선에도 올라서지 못한 상태였다.

그들의 그런 안타까운 사연, 남다른 고충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순간에 다 헤아려주신것이다.

《잠재력이 있는 도》라는 그이의 말씀은 단순히 도의 경제적잠재력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였다. 지난 시기 언제나 당을 충직하게 옹위해온 훌륭한 전통과 력사를 가지고있는 공업도의 인민,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해인 2011년 10월에도 찾고찾으시며 총진군의 앞장에 내세워주신 함남땅의 인민에 대한 믿음이였다.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된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성과 의리를 그이께서는 무엇보다 굳게 믿으시고 귀중히 여기신것이다.

그이의 믿음어린 말씀에 접한 함경남도련대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하늘같은 믿음에 한목숨바쳐 보답할 굳은 맹세를 다지였다.

드디여 기적이 일어났다. 불리한 공사조건을 마침내 극복한 함경남도련대가 기세충천하여 대오의 앞장에서 질풍쳐달리기 시작한것이였다.

지난 겨울에도 이들은 강추위속에 덧집을 짓고 골조공사를 진행하여 사람들을 놀래웠으며 소층살림집들에 대한 층막콩크리트치기도 사단적으로 제일먼저 끝냈다.

이들만이 아닌 216사단의 전체 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 공사일정이 훨씬 앞당겨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지니신 인민에 대한 위대한 믿음과 그이를 충성으로 받드는 인민의 일편단심에 의하여 형언할수 없는 시련속에서도 조선은 솟구치고있다.

12) 옮겨지펴주신 불길

조선의 북변에 자리잡은 함경북도에 어랑천발전소를 건설하는것이 가지는 의의는 자못 크다. 이 발전소가 완공되면 함경북도의 경제문제를 풀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게 되며 나라의 전력생산도 장성시킬수 있다.

그러나 건설이 이러저러한 조건으로 진척되지 못하고있던 주체107(2018)년 7월 12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어랑천발전소 팔향언제건설장을 찾으시였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언제위치까지 정해주시면서 건설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무려 4차례나 찾으시였던 어랑천발전소건설장에는 다른 건설장들과는 달리 시대의 벅찬 숨결이 느껴지지 않았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정치적의의로 보나 경제적효과성으로 보나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에 못지 않게 중대한 대상건설인 어랑천발전소건설을 전당적, 전국가적힘을 총집중하여 공사를 와닥닥 끝내야 한다고, 백두산밀에서 타오른 영웅신화창조의 불길을 함경북도에 옮겨지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때처럼 어랑천발전소건설에서 온 나라가 들썩하게 새로운 영웅신화를 창조하도록 하시려는 그이의 웅심깊은 믿음의 말씀이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어 작전과 로력, 설비, 자재, 연유보장사업을 잘하여 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내밀며 현대과학기술을 받아들여 어랑천발전소를 수력발전소들가운데서 제일 현대적인 발전소로 꾸릴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앞으로 남은 공사량이 방대하기는 하지만 발전소건설자들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면 얼마든지 제기일에 질적으로 끝낼수 있다고 하시면서 신심을 북돋아주시였다.

천금보다 귀중한 그이의 고무와 무한대한 힘과 용기를 받아안은 건설자들은 한사람같이 일떠섰다.

어랑천전역에 활활 타오르는 영웅신화창조의 불길속에 팔향언제가 짧은 기간에 완공되게 되였다.

13) 마식령속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2(2013)년 6월 4일 세계일류급의 마식령스키장을 최단기간내에 완성하실 의지를 안으시고 전체 인민과 군대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불러일으키시기 위하여 호소문을 한자한자 몸소 쓰시여 발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호소문에서 당의 원대한 구상에 의하여 마식령지구에서 천만군민의 커다란 관심속에 세계일류급의 스키장건설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으며 마식령스키장건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문화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우리 당이 펼친 거창한 애국사업이라고 쓰시였다.

그이께서는 마식령스키장건설은 남들같으면 10년이 걸려도 해낼수 없는 대공사이나 올해안으로 세계적인 스키장을 건설하여 인민들과 청소

년들에게 더욱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어 세상만복을 다 누리게 하자는 우리 당의 결심에는 추호의 드팀도 없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불굴의 정신력과 완강한 돌격전으로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스키장건설을 올해안으로 끝내며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이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키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하면서 이 호소문을 보낸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 마식령속도를 창조하며 전체 인민들은 마식령군인건설자들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워 뜻깊은 올해의 총진군에서 결사관철의 투사, 위훈의 창조자가 될데 대하여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이 공화국창건 65돐과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맞는 뜻깊은 해에 대중적영웅주의와 과감한 공격정신으로 마식령스키장건설을 기어이 끝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안아오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고 하시며 호소문을 맺으시였다.

그이의 믿음어린 호소, 인민에게 더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그이의 열화같은 사랑과 드팀없는 의지는 전체 군인건설자들과 인민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켰다.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체육과 관광, 휴식에 필요한 조건들을 훌륭하게 완벽하게 갖춘 세계일류급의 스키장을 일떠세우는 마식령속도가 창조되였다.

14) 정신력을 폭발시키는것이 기본

주체102(2013)년 6월 7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기초식품공장을 찾아주시였다.

그날 오랜 시간 생산공정은 물론 문화후생시설에 이르기까지 돌아보시며 다심한 친어버이의 정을 기울이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어느 한 곳에서 마주 보이는 생산건물을 이윽토록 바라보시였다.

공장을 아주 잘 꾸렸다고 치하해주신 그이께서는 어느 단위에서 건설했는가고 물으시였다.

한 일군이 이 공장 종업원들이 자체로 꾸리였다고 보고드리였다.

밝은 미소를 지으시고 다시 건물을 바라보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 공장의 일군이 무랍없이 녀성종업원들이 자체의 힘으로 건설한 자랑을 펼쳐놓았다.

그 이야기를 주의깊게 다 들어주신 그이께서는 생산자대중의 정신력을 폭발시키는것이 기본이라고, 평양기초식품공장에서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한것도 중요하지만 생산자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켜 자체의 힘으로 공장을 현대적으로 꾸린것이 더 귀중하다고, 핵무기보다 더 큰 힘이 바로 그것이라고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이 공장은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정말 잘되였다고, 평양기초식품공장은 애국주의가 철철 흘러넘치는 공장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15) 기념사진속의 제작소이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현대적으로 개건확장된 평양자라공장을 찾으신것은 궂은비 내리던 주체104(2015)년 7월 5일이였다.

불과 1년동안에 희한하게 천지개벽된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되였다고, 정말 보람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았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시종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공장을 돌아보시던 그이께서 더없이 기뻐하신 곳이 있었다. 무인먹이공급기가 있는 실내자라양식장이였다.

자라의 생육조건에 맞게 꾸려진 양식장안은 그저 서있기만 해도 땀이 철철 흐를 정도로 몹시 덥고 습하고 어두웠다.

그에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현장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대뜸 무인먹이공급기를 알아보시고 그앞으로 다가가시였다.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라는 붉은 글자들이 큼직하게 새겨져있는 그 무인먹이공급기는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과학자들이 개발하여 나라의 양식업에 처음으로 도입한 현대적인 설비였다.

무인공급기의 작업모습을 한참이나 세심히 보아주신 그이께서는 정말 착상을 잘하였다고, 자신께서 지난해 자라양식에 필요한 무인먹이공급기재를 창안제작할데 대한 과업을 주었는데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 과학자, 기술자들이 훌륭히 집행하였다고, 자랑할만 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방금전에는 종합조종실에서 공장통합생산체계를 특색있게 구축한 능력있는 과학연구집단이라는 평가를 주시고도 이처럼 거듭되는 평가의 말씀을 주시는 그이께 제작소일군은 스스럼없이 무인먹이운반차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속소원을 아뢰였다.

그이께서는 사진을 찍을바에는 무인먹이운반차에 씌여진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라는 글자가 나올수 있게 찍자고 하시며 그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그이의 믿음과 평가는 국가과학원의 과학자들에게 진함없는 발명과 창조의 열정을 안겨주었다.

16) 피해현장에서

주체109(2020)년에 조선은 여러차례의 자연피해를 입었다. 련이어 들이닥친 큰물과 태풍으로 하여 나라의 여러 지역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 복구사업을 벌리고있을 때에 재차 들이닥친 태풍 9호에

의하여 3개의 도가 또 피해를 입게 되였다. 특히 함경남도의 10여개 시, 군들에서는 살림집과 공공건물이 파피침수되여 수많은 수재민들이 한지에 나앉게 되였다. 무너진 살림집만 하여도 1 000세대를 넘었다. 함경북도 역시 피해는 다를바 없었다.

몸소 피해현장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마음은 참으로 아프고 무거웠다. 가을뒤에 인차 따르는 겨울을 사랑하는 인민들이 한지에서 나게 할수는 없었다. 그런데 사회의 기본건설력량과 인민군군인들이 이미 여러개 도의 피해복구현장에 전개되여있는 형편이였다. 언제나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풀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함경남북도의 피해복구를 강력히 지원하는 문제를 수도의 당원들에게 터놓기로 결심하시고 친필서한을 한자한자 쓰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서한에서 나라의 모든 지역이 자기의 심장인 수도를 각방으로 보위하는것도 국풍이지만 어려울 때 수도의 인민들이 힘들어하는 지방인민들을 성심성의로 부축하고 고무격려하는것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풍이라고 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수도의 당원동지들이 재해를 당한 함경남북도의 피해복구전구로 용약 달려나갈것을 부탁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최정예수도당원사단 당원들이 복구현장에 가서 당정책관철의 선봉이 되고 불씨가 되여야 한다고 격려해주시였다. 계속하시여 그이께서는 절대로 현지주민들에게 부담을 끼치지 말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처신하며 어려움을 이겨내는 지방인민들의 강인한 생활기풍과 기질도 배우면서 수도에서 창조된 좋은 경험들과 선진기술과 기능을 성실하게 배워주어야 한다고 쓰시였다.

끝으로 당원사단을 이끄는 지휘관들과 일군들이 매 대원들의 건강과 생활에 세심한 주의를 돌리고 다심한 심정으로 돌봐주어 당원동지들이 모두 건강한 몸으로 수도 평양으로, 정다운 집으로 돌아갈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정이 흘러넘치고 수도당원들에 대한 대해같은 믿음이 력력히 새겨진 그이의 친필서한을 수도의 당원들만이 아닌 전체 인민들이 북받치는 격정속에 받아안았다. 즉시 최정예수도당원사단이 조직되고 수도당원사단의 일군들과 당원들이 금수산태양궁전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충성의 보고를 드리고 피해지역으로 출발하였다.

피해지역으로 달려간 수도의 당원들은 수재민들에게 당의 사랑과 숭고한 뜻을 깊이 심어주고 그들을 적극 도와주었으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결사의 투쟁을 벌려 당창건기념일인 10월 10일전으로 모든 수재민들에게 살림집과 공공건물을 건설하여주었다.

함경남북도의 시, 군들에서의 경사만 아니였다.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계속되고 자연재해까지 겹쳐들어 류달리 어렵고 간고하였던 2020년이였으나 그이의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과 무한한 믿음에 의하여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많은 사람들이 새집들이 경사를 맞이하였다.

인민을 믿고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활화산처럼 분출시키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가 류례없는 고난속에서도 온 나라 인민들에게 기쁨과 환희, 끝없는 영광과 행복을 안겨준 못잊을 2020년이였다.

17) 영웅청년신화

주체104(2015)년 4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북방의 험한 령들과 고개를 넘어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가 일떠서고있는 천수땅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런 험한 곳에서, 상상할수 없는 혹한속에서 거창한 대상건설을 한다는것은 조선로동당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조선청년들만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발전소건설장의 곳곳을 돌아보시면서 그이께서는 백두대지에 빛나는 위훈을 새겨가는 청춘들에 대한 자랑과 기대를 담아 천군만마를 얻은 심정이라고 거듭 말씀하시였다.

얼음덮인 서두수우에 거연히 솟은 1호발전소언제를 가리키시며 그이께서는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서 세운 조선청년들의 자랑찬 전통을 이어 백두대지에 대대손손 물려줄 조국의 만년재부를 일떠세움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그이의 애국의 호소와 크나큰 믿음은 돌격대원들과 온 나라 청년들을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폭풍쳐 내달리게 하는 추동력으로 되였다.

주체104(2015)년 4월에만도 2 800여명의 청년들이 백두대지의 발전소건설장에 탄원해나섰다. 그이께서 다녀가신 때로부터 불과 120여일동안에 건설장에서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경이적인 전변이 일어났다.

청년돌격대원들은 혁명적인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지난 10년간 진행해온것보다 더 방대한 건설과제를 불과 넉달 남짓한 기간에 해제낌으로써 세상을 놀래우는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하였다.

주체104(2015)년 9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완공을 앞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두번째로 찾으시였다.

만족하시여 언제의 웅장한 자태를 한동안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1호발전소언제공사를 지난 8월 28일 청년절을 맞으며 완공하였는데 백두전구에서 새로운 기적이 창조되였다고, 우리 당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조선청년들만이 창조할수 있는 신화이라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날 그이께서는 발전소와 교양실의 명칭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백두산영웅청년위훈전시관으로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자신들이 발휘한 혁명성과 희생성, 애국심에 대한 가장 고귀한 평가가 담긴 명칭들을 받아안은 돌격대원들이 한없는 영광과 자긍심을 안고 더욱 분발해나섰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으며 드디여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가 준공되게 되였다.

3.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정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는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정치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 당이 들고나가야 할 투쟁구호입니다. 우리는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들의 운명을 지켜주며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조선로동당의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는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것을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하여서는 천만금의 재부도 아낌없이 바치며 지어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인민에 대한 사랑이며 헌신이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는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다.

조선로동당이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것은 인민을 자기 생명의 뿌리로 여기기때문이다. 조선로동당은 당의 위대함은 곧 인민의 위대함이고 당의 힘은 곧 인민의 힘이며 당이 이룩한 모든 승리는 다 인민이 이룩한 승리라고 본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들 한사람한사람의 생명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전체 인민이 건재하고 건강해야 당도 있고 국가도 있고 나라의 모든것이 다 있다고 본다.

조선로동당의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는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내세우고 좋은날 어려운날 가림없이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해나가는데서 표현된다.

조선로동당은 언제나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사랑하였으며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였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들과 조선로동당의 활동원칙등에는 인민대중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려는 조선로동당의 각오와 의지가 그대로 담겨져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집권당들이 있지만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당은 조선로동당밖에 없다.

하늘도 감복할 어머니당의 무한한 열과 정이 인민들의 마음속에 끝없이 흘러들어 주체의 사회주의라는 거목의 뿌리와 당과 인민의 혈맥이 나날이 더욱 굳건해졌으며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샘처럼 솟구치였다.

조선로동당의 인민을 위한 수십성상의 멸사복무의 력사는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천신만고를 달게 여기며 인민을 떠받들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을 위한 헌신의 력사이다.

1) 인민을 위해 사는 사람들

조선이 갓 해방된 후 어느해에 있은 일이다.

당시 조선에 와있던 한 외국인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어느한 지방에서 아이를 업은 녀성이 이악하게 모내기를 하고있더라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긴급히 하시던 사업을 미루시고 즉시 수십리길을 떠나시였다.

현지에 도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곳 일군들에게 당신들이 진정 인민의 부모이고 혈육들인가. 어째서 녀성들이 아이를 업고 모내기하는것을 내버려두었는가고 준절히 이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책을 세우시고 새벽녘이 되여서야 돌아오시였다. 한 녀성이 아이를 업고 모내기를 한 사실을 말씀드렸던 외국인이 수령님의 로고를 걱정하여 전화로 해도 되시련만 부디 그 먼곳에까지 갔다오셔야 되시겠는가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야 인민들을 위해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야 되겠는가, 항일무장투쟁시기 만주의 눈판에 열번 쓰러졌다가도 불쌍한 우리 인민이 생각나서 죽을래야 죽을수 없어 다시 일어나군 하였는데 그렇게 찾은 인민을 어떻게 소홀히 할수 있겠는가고 절절하게 교시하시였다.

2) 농민들의 소원을 안으시고

주체42(1953)년 10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과 나흘전에 찾으시였던 흥남비료공장(당시)을 또다시 찾으시였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도안의 농촌마을들을 돌아보시며 가시는 곳마다에서 비료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안타까운 목소리를 가슴아프게 새겨들으시였던것이다. 함주군의 어느 마을을 찾으시였을 때에 비료가 없어 소출을 높이지 못한다고 하는 한 녀인의 말을 들으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시였다. 다음날 이른새벽 또 다른 마을의 논벌로 나가시였다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곳 농민들이 비료를 애타게 기다린다는것을 아시게 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으로 비료공장이 파괴되였기때문에 화학비료에만 의존하려 하지 말고 두엄을 많이 내야 한다고 교시하시면서 2년만 참으면 우리 비료가 나온다, 그때에는 동무들에게 비료를 많이 보내주겠다고 농민들과 약속을 하시였다.

이런 사연을 안으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다시 비료공장을 찾으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민들의 심정을 흥남의 로동계급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시면서 농민들에게 2년만 더 참으면 비료가 공급된다고 하였다고, 자신께서는 흥남의 로동계급이 당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 결정을 반드시 관철하리라는것을 믿었기때문에 농민들에게 그렇게 말하였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비료공장의 로동계급을 믿음에 찬 눈길로 바라보시며 비료에 대한 농민들의 소원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동무들도 잘 아는것이 좋겠다고, 동무들은 어떻게 해서나 공장을 빠른 시일안에 복구하여 농민들의 이 절절한 소원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간곡하게 당부하시였다.

농민들의 소원을 안으시고 또다시 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로고를 가슴에 새긴 흥남의 로동계급은 짧은 기간에 공장을 복구하고 생산을 다그쳐 많은 비료를 농촌들에 보내주었다.

3) 룡덕농장의 도화산

주체46 (1957) 년 3월 1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봄을 맞은 평안남도 숙천군 룡덕농장을 찾으시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미 떠나간 한 애국농민이 살던 수수한 집에도 들리시고 정미소를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농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하나하나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며 축산, 양어, 잠업에 힘을 넣고 토지개량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위생방역사업을 잘하고 전사자, 피살자가족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통덕산에도 오르시였다.

쌍바위터에 오르시여 한동안 주변을 살펴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산은 명산이라고 하시면서 여기에 복숭아나무를 비롯한 과일나무를 많이 심어 통덕산을 언제나 과일꽃이 만발한 무릉도원으로 전변시킬데 대

하여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친히 산이름을 《도화산》이라고 지어주시였다.

시간은 어느덧 13시를 넘었다.

때식도 잊으시고 헌신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농장의 한 일군은 늦게나마 점심식사를 하실것을 간청하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고장 농민들이 잘살게 될 때 밥상을 마주하겠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장을 다녀가신 후 그이의 가르치심대로 그곳 사람들은 도화산에 과일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어 산을 보배산으로 전변시키였다.

4) 들었던 수저를 놓으시고

주체56(1967)년 9월 17일 밤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큰물피해를 입은 평양시의 수해복구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느라 늦게야 저녁진지상을 받으시였다.

저녁식사도중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낮에 어느한 주택건설장에서 학생들을 만나 담화를 하니 불편한 점이 없다고 하는데 지방에서 갑자기 많은 학생들이 올라왔는데 왜 불편한것이 없겠는가고,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고 교시하시였다.

한 일군이 위대한 수령님께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아무런 불편이 없이 생활하고있는데 다만 김책공업대학(당시)학생들이 기숙사를 다른 학생들에게 내주고 교실들에 림시침실을 꾸려가지고있다고 말씀드리였다.

침실을 어떻게 꾸렸는지 가보았는가고 물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일군은 대부분의 침실들은 별일 없지만 몇개 호실은 림시대책으로 멍석을 펴고 그우에 노전을 깔았다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저를 놓으시고 잠시 동안을 두시였다가 대학생들은 로력부대가 아니라 나라의 귀중한 민족간부대렬이다, 이번에 우리가 그들을 수도건설에 참가시킨것은 건설로력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라 정신로동을 하는 그들을 육체로동을 통하여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자는데도 있다, 그런데 잠자리때문에 한두사람이라도 앓아누우면 되겠는가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다고 하시며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현지에 도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멍석을 깐 곳을 보자고 하시며 수해후과를 가시지 못하여 전기불도 없는 계단을 오르시여 5층의 멍석을 깐 방에 이르시였다. 허리를 굽히시고 이부자리를 살펴보시고 네귀가 들린 노전끝도 손수 눌러놓으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불이 모자라겠다고, 이부자리를 깔아도 배기겠다고 심려하시며 일군들에게 조금만 관심해도 풀릴수 있는 문제인데 왜 이쯤한것도 해결해주지 못하는가고 엄하게 교시하시였다.

잠시후 학생대표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침실이 춥지 않은가, 목욕은 제때에 하는가, 밥은 무슨 밥을 먹는가, 국과 찬은 어떻게 먹는가, 수도물은 잘 나오는가 하는것을 알아보시였다.

학생들은 모든 조건이 충분히 마련되여 아무런 불편과 걱정이 없이 일하고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을 할 때에는 잘먹고 잘자는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에게 침대깔개도 해주고 베개도 해주고 모포도 해결해주자, 쌀도 백미로 공급하고 남새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도록 하자고 교시하시였다.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그윽한 정이 어린 시선으로 학생들을 둘러보시다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갈리신 음성으로 자신께서 저녁식사를 하다가 학생들의 잠자리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나왔다고 하시며 멀리 창밖으로 무거운 시선을 옮기시였다.

혈기가 넘치는 학생들이 며칠밤 멍석우에서 지낸것이 그리도 마음에 걸리시여 들었던 수저마저 놓으시고 찾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학생들도 일군들도 흘러내리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다.

5) 《록두》나물

주체60(1971)년 4월 1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축하하러 그이의 저택에 갔던 일군들은 그이와 식탁을 마주하게 되였다.

한참 식사를 할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상우에 놓여있는 한 접시를 가리키시며 이 나물이 어떤지 맛을 보라고 하시였다.

그들이 록무나물로 알고 맛본다음 별맛이라고 말씀드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매우 만족해하시며 그렇다면 이 나물에 합격도장을 찍어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둘러보시며 사실 이 나물은 록두나물인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에 흔한 나무의 씨로 기른것이라고 알려주시였다. 그러시면서 맛이 어떤가 보고 인민들에게 공급하자고 자신께서 시험삼아 자래운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사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택정원에 여러가지 포전을 만들어놓으시고 일년사시절 갖가지 농작물을 심고 가꾸시며 그 성장과 작황에 대하여 세심히 관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많은 농작물과 과일나무, 기름나무들을 몸소 가꾸시면서 가장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주체농법을 창조하시였고 온 나라에 일반화하도록 하시여 농업생산에서 풍작을 안아오도록 하시였다.

그들이 이런 가슴뜨거운 생각을 하고있는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무들도 아다싶이 록두는 귀한 곡식이라고, 옛날 한다하는 부자집잔치에도 록두지짐을 마음껏 부치거나 록두나물을 푼푼히 기르지는 못하였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실 나라의 경지면적가운데서 몇천정보를 뚝 떼서 록두를 심어가지고 인민들에게 록두를 실컷 먹이고싶었지만 땅이 제한되여있어 그렇게 할수 없는것이 늘 마음에 걸려서 오래전부터 록두를 대신할수 있는것이 없겠는가고 생각해보았다고 하시였다. 그런데 자료들도 보고 농촌에 나가 담화도 해보는 과정에 한 나무의 씨로 나물을 기르면 록두나물 못지 않다는것을 알게 되였다고, 그래서 자신께서 길러본게고 동무들에게 오늘 맛을 보인건데 동무들이 좋다고 하니 이젠 마음이 놓인다고 교시하시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록두》나물을 대대적으로 생산공급하게 하시였고 그것이 인민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못내 만족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6) 위성은 하늘을 날고 철갑상어는 바다로 간다

주체98(2009)년 6월의 어느 일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산중의 바다를 련상케 하는 신창의 양어장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푸른 버들이 휘늘어진 못가에서 희귀한 철갑상어들이 떼지어 흐르는 광경을 보시고 기쁘고 만족하시여 이렇게 시를 읊으시듯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위성은 하늘을 날고 우리의 철갑상어는 바다로 간다!

그이께서 강렬한 애국열망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이어가신 불굴의 강행군길이 있어 마련된 거창한 변혁, 귀중한 조국의 재부, 인민의 행복이였다.

신창땅에서 철갑상어양어의 성공이라는 또 하나의 기적을 보게 되신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감회깊은 추억에 잠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늘 신창양어장을 돌아보니 고난의 행군시기가 생각난다고. 그때는 나라사정이 너무 어려워 양어장을 꾸릴 생각조차 할수 없었으나 자신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행복하게 살 앞날을 그려보면서 신창지구에 대규모의 양어장을 꾸릴것을 결심하고 많은 품을 들였다고 교시하시였다.

참으로 준엄하고 어려운 고난의 행군시기였다.

이 땅의 누구나 허리띠를 조여야 했던 시기,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공화국을 삼키려 떼지어 달려드는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맞서싸워 조국을 수호하여야 했던 간고한 나날이였다.

이 간고한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철의 담력과 불굴의 의지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터전을 하나하나 품들여 마련해가시였다.

그이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헌신에 의하여 인공위성들이 하늘로 련이어 날아오르고 철갑상어양어가 성공하는 희한한 현실이 펼쳐지게 되였다.

7) 한밤중에 하신 리발

어느해 12월중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안북도의 어느한 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고 돌아오신 날 밤이였다.

그이를 수행하던 한 일군은 우연히 숙소의 문밖을 나섰다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리발을 하고계시는것을 목격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긴장한 현지지도일정을 몸소 작성하시고 이른 새벽에 길을 떠나시였다가 밤늦게야 야전집무실로 돌아오군 하시였다. 돌아오신 후에도 또 집무를 보시다가 새날을 맞군 하시였다.

수행한 일군들조차도 그이께서 언제 주무시고 휴식하시는지 알수 없었다. 비길데없이 분망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리발하실 시간을 짜낸것이 바로 그 밤시간이였던것이다.

시간도 시간이려니와 장소가 또한 놀라운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리발하신 곳은 아늑한 방도 아니고 현관안이였다.

더우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앉아 계시는 의자는 팔걸이도 없는 수수한 사무실용의자였다.

송구스러운 심정을 금치 못하며 수행일군은 위대한 장군님께 왜 이 밤에 불편한 자리에서 리발하시는가고 무랍없는 말씀을 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며 래일 아침 일찍 로동계급을 만나러 가야겠기에 시간을 내여 리발을 하였다고 자신께서는 이렇게 야전생활을 하는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교시하시였다.

8) 일하는것이 곧 휴식

주체89(2000)년 1월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평안북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시였다.

일군들은 불철주야로 분투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건강이 념려되여 현지지도를 좀 미루셨으면 하는 의향을 말씀드리였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사들이 최고사령관을 기다리고있고 또 평안북도에서 토지정리한 포전들도 보고싶어 한시바삐 떠나야 한다고, 자신에게는 일하는것이 곧 휴식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이렇게 길을 떠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달리는 야전렬차에서도 집무를 보시느라 잠시의 휴식도 못하시였다.

자신의 건강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또 한밤을 지새우신 위대한 장군님께 일군들은 너무도 안타까와 안녕을 바라는 전사들의 청을 한번만이라도 받아주실것을 거듭 아뢰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시며 걱정마오, 그래도 지난밤 나는 30분동안 푹 잤소, 30분동안 말이요라고 도리여 일군들을 위로하시였다.

겨울날씨치고도 류달리 맵짜게 춥고 찬바람이 부는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부대와 토지정리한 태천군 한드레벌을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보시였다.

9) 시간을 제일 아끼신분

어느해 1월 어느날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평안북도안의 중요공장, 기업소 지배인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건강을 바라는 일군들의 진정을 인자하게 받아들이시며 고맙다고 따뜻한 인사를 보내신 그이께서는 자신께서는 나라의 전반사업을 보아야 하므로 늘 시간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항상 바쁘게 지낸다고 흔연한 어조로 교시하시였다.

나직하게 울리였지만 그이의 말씀은 마디마디 전사들의 가슴을 쳤다.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십년간 바쳐오신 무한한 헌신과 로고의 세계가 돌이켜져 일군들모두가 북받쳐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침략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을 수호하기위한 군사문제로부터 첨예한 외교문제들, 조국통일문제와 경제건설문제, 인민생활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의 크고작은 일을 일일이 돌보시는 그이의 심혈과 로고는 실로 그 폭과 심도에 있어서 보통의 위인으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것이였다.

눈가에 물기가 번쩍이는 전사들을 정깊은 시선으로 둘러보시며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그전에는 수령님께서 조

금이라도 더 편히 쉬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초가 1시간이 되여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내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일을 더 많이 할수 있게 1초가 1시간이 되여주었으면 좋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일군들모두가 그이를 위하여 흘러가는 시간을 순간이라도 멈추어드리고싶은 강렬한 심정에 휩싸여있는속에 위대한 장군님의 절절한 음성이 또다시 울리였다.

그이께서는 내가 일하면서 제일 아끼는것도 시간이고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것도 시간이 흐르는것이다, 1초를 1시간이 되게 늘일수만 있다면 그만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겠는데 그렇게 할수 없는것이 안타깝다고 교시하시였다.

시간의 흐름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기대와 념원은 참으로 특출한 것이였다.

일군들은 쌓으면 하늘에 닿고 펼치면 바다가 될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업적이 어디에 시원을 두고있는가를 다시금 뜨겁게 새겨안았다.

10) 천여리강행군

주체98(2009)년 2월초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해지구의 흥남비료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기업소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발기한 가스화암모니아생산공정건설안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공사에 대형산소분리기가 절실히 필요하다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스화암모니아생산공정건설에 필요한 설비들을 될수록 우리 나라에서 생산한것으로 장비하여야 한다고, 락원기계련합기업소(당시)에서 대형산소분리기를 만들수 있는것만큼 그곳에 과업을 주어야 할것 같다고 교시하시였다.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던 그이께서는

우리가 힘들어도 락원기계련합기업소에 다시한번 가보아야 할것 같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곧 동해지구에서 서해지구에로의 천여리강행군을 하시여 락원기계련합기업소 구내에 들어서시였다.

2월의 추위속을 뚫고 먼길을 달려오신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너무도 억이 막혀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마중나온 일군들에게 이곳을 왔다간지 석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대형산소분리기를 만드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서기때문에 함경남도안의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치자마자 곧장 이 기업소에 왔다고 하시였다.

일군들과 간단히 인사를 마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곧장 대형산소분리기부감도로 향하시였다. 앞장서 걸으시며 그이께서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 비료생산공정을 현대화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산소분리기를 제때에 만들어보내주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동무들도 알겠지만 흥남비료련합기업소를 현대화하여야 비료문제가 풀릴수 있고 비료문제가 풀려야 알곡문제, 먹는 문제가 풀릴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대형산소분리기를 만드는것은 유압식굴착기를 만드는데 비하면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닐것이라고, 락원에서 유압식굴착기를 처음 만들 때에는 아뜩해하였지만 지금은 어렵지 않게 만들고있지 않는가고 일군들을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락원기계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이 대형산소분리기를 만들데 대한 과업을 무조건 집행하리라고 굳게 믿는다고 하시였다. 떠나시면서도 자신께서는 락원을 믿고 가겠다고 정을 담아 교시하시였다.

락원의 로동계급은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적인 현지지도와 믿음에 고무되여 그이께서 의도하시는 날까지 대형산소분리기를 끝끝내 만들어냈다.

그해 2월에만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락원에 이어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시고 원산시내 공장들과 원산농업대학,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당시), 무산광산련합기업소, 회령시의 여러 부문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빨찌산식 강행군을 하시였다.

11) 금방석과 바늘방석

례년에 없는 폭염이 계속되던 주체107(2018)년 8월초 어느날 깊은 밤이였다.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의 로동계급이 만든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의 시운전을 지도하시기 위해 현지에 나오시였다.

그날 낮에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를 보아주시였건만 인민들이 리용하는데 자그마한 부족점이라도 있을세라 또다시 귀중한 시간을 내시였던것이다.

먼저 궤도전차의 시운전을 지도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어 무궤도전차가 있는 곳으로 향하시였다.

이윽하여 그이를 모신 무궤도전차는 수도의 밤거리를 누비며 기운차게 달리였다.

인민들이 앉을 평범한 좌석에 자리를 잡으신 그이께서는 전차의 기술적특성지표를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몸소 가늠해보시였다.

소음과 진동은 어느 정도인가, 내부환경과 의장품들의 문화성과 질은 제대로 보장되였는가.…

그 모든것을 료해하고나신 그이께서는 새형의 무궤도전차가 반년전에 만든 무궤도전차보다 질이 월등하게 개선되였다고 만족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제손으로 훌륭한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를 만들어 출퇴근하는 수도시민들을 금방석에 앉히고 사회주의웃음소리를 싣고 달리게 하는 일이 얼마나 보람있는 일인가고 하시였다.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귀전에는 그날 평양무궤도전차공장에서 하신 그이의 말씀이 울리였다.

그때 그이께서는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만족속에 보시며 지금처럼 무더운 삼복철이나 추운 겨울에 인민들이 뻐스정류소에 서있는것을 볼 때면 승용차를 타고가는것이 바늘방석에 앉은것 같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였다.

생활의 단면에 비낀 인민의 불편을 아프게 여기시며 그이께서는 우리는 인민들이 하늘의 별을 따달라고 하면 그 별을 따주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이것은 우리 당의 투쟁강령이라고 하시며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생산에 커다란 심혈을 쏟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때로는 일군들의 안목도 틔워주시고 때로는 조립중에 있는 무궤도전차에도 오르시여 자그마한 세부에 이르기까지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는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깡그리 바치시는데서 혁명하는 멋, 인생의 가장 큰 희열을 느끼시는 그이의 무한한 사랑과 헌신이 낳은 또 하나의 금방석이였다.

어느덧 무궤도전차의 시운전은 끝났다.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다시금 바라보시며 그이께서는 오늘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새형의 궤도전차와 무궤도전차를 타보았는데 대단히 만족하다고, 오늘은 년중 기분이 제일 좋은 날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12) 몸소 타보신 의자식삭도

주체102(2013)년 12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맵짠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완공의 날이 가까와오는 마식령스키장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스키장건설에서 기본은 어디까지나 스키주로와 삭도를 비롯하여 스키운동에 필요한 시설을 완비하는것이라고 하시며 의자식삭도를 타보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때 일군들은 긴장감을 금할수 없었다. 그 의자식삭도로 말하면 아직 시운전을 해보지 못한것이였다.

일군들이 거듭 만류해드렸건만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들이 광범히 리용하게 될 삭도를 직접 타보면서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인해보아야 마음을 놓을것같다고 하시며 기어이 삭도에 오르시였다.

삭도에 오르시여 주로의 상태를 친히 료해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들이 리용하기 편리하게 삭도의 바닥을 좀 높여줄데 대해 세심히 이르시였다. 그리고 설계일군들은 한번 설계한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시공과정에 현지에 나와 료해하여보고 불합리한 설계들은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마식령스키장의 모든 시설들을 깐깐히 따져보고 스키장을 리용하는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들이 사소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결국 일군들이 앞으로 진행하려고 계획하였던 의자식삭도의 시운전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친히 하신것으로 되고말았다.

13) 어머니날에 찾으신 두 수산사업소

조선에서 11월 16일은 어머니날이다.

주체105(2016)년 11월 16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5월27일수산사업소를 찾으시였다.

혁명사적교양실과 문화회관을 거쳐 야외하륙장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방금 부두에 와닿은 어느한 고기배에 몸소 오르시였다.

그이께서는 선창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의 작업모습과 하륙장에서 물고기폭포가 쏟아져내리는 광경도 기쁨속에 바라보시면서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현재까지 많은 물고기를 잡은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오늘 아침 그 보고를 받고 너무 기뻐 이 소식을 자식들을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운 우리 인민들에게 빨리 알려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한달음에 수산사업소로 찾아왔다고, 인민들이 이 소식을 전해들으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고 말씀하시였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점심시간이 가까와왔다.

하건만 그이께서는 순간의 휴식도 없이 다른 수산사업소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1월8일수산사업소를 돌아보시다가 랭동저장고에도 들리시였다.

그때 저장고마다에는 물고기가 가득 쌓여있었다.

하나하나의 차디찬 랭동물고기블로크들을 기쁨속에 어루쓸기도 하시며 그이께서는 정말 기분이 좋고 쌓였던 피로가 말끔히 가셔진다고, 이곳 수산사업소를 조직한 보람이 있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원아들의 친부모, 양로원 로인들의 친자식이 된 심정으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보내줄데 대하여 절절히 당부하시였다.

그이께서 어머니날에 찾으시였던 동해포구의 수산사업소들은 초소의 군인들과 전국의 원아들, 보양생들을 위하여 그이께서 친히 새로 조직해주신 수산사업소들이다.

14) 보아주신 형성안

완공된 문수물놀이장이 준공을 앞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문수물놀이장에 또다시 나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리상, 인민의 꿈이 또 하나 현실로 꽃펴나게 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시종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그이께서는 물놀이장을 돌아보시였다.

구불구불 뻗어간 여러가지 색갈의 물미끄럼대들이며 형형색색의 수조들, 조약대, 인공폭포와 명산들의 기암절벽들을 그대로 옮겨놓은듯싶은 인공바위산, 금시 살아 뛰여다닐것만 같은 동물조각들…

물놀이장의 구내를 걷고 또 걸으시며 자그마한 세부에 이르기까지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그이를 따르며 일군들은 희한한 인민의 문화휴식터를 일떠세우시기 위해 그이께서 기울이신 심혈의 세계를 돌이켜보았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물놀이장을 훌륭하게 일떠세우시려 113건의 형성안을 보아주시였다.

한밤중에도 이른새벽에도, 휴식일에도 명절날에도 그이께서는 문수물놀이장의 형성안을 지도해주시였다. 설계일군들이 아무리 사색을 모으고 성의를 더했어도 그이께서는 형성안에 만족이 없으시였고 번마다 새로운 착상을 더 넣어주군 하시였다. 때없이 건설장에 찾아오시여 장시간에 걸쳐 돌아보시고는 또 형성안을 다시 작성하도록 하군 하시였다.

그다음은 설계도면작성, 예산타산 그리고 시공… 그 모든것을 그이께서는 하나하나 다 보아주시고 지도해주시였다. 타일 한장에까지 그이의 로고가 깃들어있다.

문수물놀이장뿐이 아니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형성안을 590여건, 양덕온천문화휴양지형성안을 2 000여건, 삼지연시형성안은 무려 11 360건 보

아주시였다. 그이께서 보아주시는 형성안을 수자로 다 계산할수가 없다. 그이께서는 인민의 웃음과 행복을 위한 건설을 련속 구상하시고 형성안들을 끝없이 보아주시며 건설장을 몇차례나 찾으시며 건축물들을 인민의 편의와 문명생활을 최상으로 보장할수 있게 완성하도록 하신다.

15) 12시간동안에만도

태풍8호가 발생하여 조선으로 밀려오던 주체109(2020)년 8월말 어느날이였다. 해상을 따라 북상하는 태풍8호가 원래의 자기세력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황해남도의 해안지역을 향해 각일각 밀려들고있던 긴박한 그 시각 도당책일일군은 뜻밖에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걸어오신 전화를 받게 되였다.

새벽 2시가 거의 되여오는 때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일군으로부터 도의 일기상태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일군의 보고를 들으신 그이께서는 태풍8호는 아직 남쪽 200km밖에 있다고 하시면서 방금전 해당 기관에 알아보신 태풍의 구체적인 관측정형에 대하여 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에게 비가 얼마나 오는가, 논의 물은 다 뽑았는가, 농작물이 넘어지지 않았는가 일일이 물으시며 필요한 대책을 세우도록 방도를 세워주시였다.

새벽 3시가 좀 지나 시작된 그이의 전화는 새날이 밝아 정오가 지날 때까지 수시로 계속되였다.

12시간도 채 못되는 사이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도의 책임일군에게 12차, 도안의 군당책임비서들에게 7차 전화를 걸어주시며 태풍피해를 최소화하여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사수하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였다.

16) 세상에 다시 없는 락

주체108(2019)년 4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장을 찾으시였다.

건설장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산릉선에 건설하고 있는 정각터에도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자신께서는 이달에 중요한 큰 회의들을 앞두고 중요대상건설장들을 다 밟아보기로 하였다고, 그것은 그 중요대상건설이 우리 인민들과 약속한 사업이기때문에 자신께서 책임지는 립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를 우러르며 일군들은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늘 강조하는것처럼 이렇게 만짐을 지고 달리는 고생을 세상에 다시 없는 락으로, 복으로 감수하여야 한다고, 인민을 위한 고생을 우리가 하여야지 누가 대신해줄수는 없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17) 대동란의 나날에

조선에서는 주체109(2020)년 2월부터 2년 3개월에 걸쳐 굳건히 지켜온 나라의 비상방역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최중대비상사건이 발생하였다.

악성전염병의 전파는 건국이래의 대동란이라고 말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11(2022)년 5월 12일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를 소집하시였다.

회의에서는 나라앞에 조성된 방역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회의에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조성된 상황에 대처하여 국가방역체계를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하고 비축해놓은 의료품예비를 동원하며 강도높은 봉쇄상황하에서 인민들이 겪게 될 불편과 고충을 최소화하고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회의를 마치신 후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지역봉쇄와 단위별격페조치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고 방역사업에서 주도권을 쥐며 과학적인 치료방법과 전술을 전격적으로 따라세우고 국가적인 의료품보장대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11(2022)년 5월 14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를 또다시 소집하시였다.

회의에서는 전국적범위에서 전파확대되고있는 전염병상황을 신속히 억제, 관리하고 전략적주도권을 확고히 쥐기 위한 정치실무적대책들과 최대비상방역체계의 요구에 맞게 긴급해제하는 예비의약품을 신속히 보급하기 위한 문제가 집중토의되였다.

회의에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방역정책집행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에 기초한 강한 조직력과 통제력을 유지하고 방역투쟁을 강화해나간다면 얼마든지 위기를 극복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신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광범한 대중에게 전염병방지와 치료에 필요한 상식선전사업을 짜고드는것과 함께 대중의 리해를 도모할수 있는 다양한 편집물들을 많이 만들어 보급할데 대하여, 일군들이 시련을 겪는 군중속에 들어가 고락을 같이 하며 공산주의적미덕과 미풍이 어렵고 간고한 방역대전에서 더 높이 발양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당중앙이 력사의 시련앞에서 다시한번 자기의 령도적역할을 검증받을 시각이 왔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무엇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누구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 싸워야 하는가를 더 깊이 자각할 때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당은 자기의 중대한 책무앞에 용감히 나설것이며 무한한 충실성과 헌신으로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안녕을 전적으로 책임질것이라고 하시면서 방역대전에서 반드시 대승을 이룩할 결심과 의지를 거듭 피력하시였다.

회의에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언제나 인민과 운명을 함께 할 결의와 하루빨리 온 나라 가정에 평온과 웃음이 다시 찾아들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품들을 본부당위원회에 바친다고, 어렵고 힘든 세대에 보내달라고 제의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5월 15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협의회를 소집하시고 인민군대 군의부문의 강력한 력량을 투입하여 평양시안의 의약품공급사업을 즉시 안정시킬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특별명령을 하달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를 마치시는 길로 평양시 대동강구역에 위치한 약국들에 들리시여 의약품공급 및 판매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5월 17일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회의에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과 국가의 방역정책집행과 관련한 중요한 결론을 하시였다.

5월 21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협의회를 또다시 소집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나라에 닥쳐온 방역위기앞에서의 당의 임무, 당의 역할, 당일군들의 책무에 대하여 재삼 강조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곳에 우리 당조직과 당일군들이 서있어야 한다고, 인민에 대한 무한한 헌신과 변함없는 충심을 안고 인민보위, 인민사수전의 방탄벽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삽시에 온 나라를 휩쓸었던 열병이 악성전염병이라는 사실을 보고받으신 그 시각부터 하루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시고 그토록 커다란 마음속고충을 이기시며 헌신분투하시였다.

중요회의만 하여도 10여차, 몸소 찾으신 국가비상방역사령부와 약국들, 제시하신 명철한 방략과 취해주신 수많은 인민사랑의 조치들. …

마침내 조선인민은 건국이래의 대동란을 이겨내고 방역대승을 이룩하였다.

그로부터 수십일이 지나 방역대승을 총화하는 회의를 통해 조선인민은 인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바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피타는 고심과 결사의 헌신에 대하여 또다시 뜨겁게 눈물속에 새겨안게 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앓으시면서도 한시도 자리에 누우시지 못하시고 나라의 방역사업을 지도해주시였다. 그동안 지도해주신 령도문건만 해도 무려 1 772건에 2만 2 956페지나 된다.

*　　*　　*

조선인민은 사랑과 헌신으로 자기들의 존엄과 영예, 생명을 지켜주고 웃음과 행복을 꽃피워준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라 부르며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따르고있다.

장장 수십년간 남모르는 고뇌와 심혈, 희생과 헌신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로 조선로동당은 나라와 인민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웠으며 이 땅에 자존과 번영의 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펼치였다.

참으로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는 인민과 더불어 영원할 정의롭고 매혹적인 정치방식, 가늠할수 없고 계산해낼수 없는 무한한 위력과 생활력을 낳는 위대한 정치방식이다.

조선로동당이 창건되여 활동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장장 수십년세월이 흘러 거의 한세기가 되여온다. 그 무수한 나날의 갈피갈피와 수천만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겨진 위대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성스러운 력사를 어찌 단 수십페지의 도서에 다 담을수 있겠는가.

세인이 알지 못하는 뜨거운 열과 정을 지니시고 위민헌신의 길을 끝없이 걷고걸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만사람을 감격케 하고 경이적인 기적을 련이어 안아오는 위대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는 끝없이 계속될것이다.